

# 세계 테니스를 정복했던 그 남자들, 지금 뭐할까?

1973년 8월 23일, 세계남자테니스협회(이하 ATP)가 '컴퓨터 랭킹 시스템'을 처음 선보인 이후 1979년부터 매주 ATP 세계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1973년 ATP 첫 세계 1위 일리에 나스타세(루마니아)부터 현재까지 왕좌에 올랐던 선수는 총 26명이다. 이중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앤디 머레이(영국) 등 빅 4만 현역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한 22명의 황제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삶을 추적했다.

글\_ 백승원 객원기자, 사진\_ 테니스코리아, GettyimagesKorea



올 시즌 복식 선수로 코트에 복귀한 휴이트(왼쪽)

## 코트는 나의 영원한 무대

역대 1위들은 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만큼 은퇴 후에도 여전히 테니스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TV 해설가 및 선수들의 코치로서 꾸준히 테니스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후 TV 해설가 및 분석가로서 가장 큰 명성을 쌓고 있는 사람은 쿠리어다. 그는 2005년부터 호주오픈 주관방송사 멤버인 Channel 7에서 해설을 맡으며 선수들의 경기 직후 온코트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정현의 온코트 인터뷰 역시 쿠리어가 담당했다. 그는 선수를 편하게 하면서도 선수와 관중이 서로 교감하는 자신만의 인터뷰 스타일로 인기가 높다. 이 외 다른 여러 TV 방송국을 통해서도 그의 목소리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코치로서 명성을 쌓고 있는 전설들도 있다. 에드베리는 2013년 말 페더러의 코치를 맡으면서 그의 부활을 도왔고 모야는 현재 절친 나달을, 애거시는 지난 2월까지 조코비치를 지도했다. 조코비치는 베커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렌들은 머레이의 코치로서 2013년 Wimbleton 우승과 세계 1위 등극을 도왔다. 이렇듯 빅 4 모두 역대 1위들을 코치로 둔 경험이 있다. 프랑스오픈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한 쿠에르텐은 자국에서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를 지도하는 특이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선수 시절 설립한 비영리단체를 통해 아이들과 장애우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은퇴를 선언했던 휴이트는 올 시즌 시작과 함께 복식 선수로서 컴백을 선언, 다시 투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명	국가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존 뉴콤	호주	1974년 6월 3일	8	1981
지미 코너스	미국	1974년 7월 29일	268	1996
존 매켄로	미국	1980년 3월 3일	170	1994
이반 렌들	체코/미국	1983년 2월 28일	270	1994
매츠 빌란더	스웨덴	1988년 9월 12일	20	1996
스테판 에드베리	스웨덴	1990년 8월 13일	72	1996
보리스 베커	독일	1991년 1월 28일	12	1999
짐 쿠리어	미국	1992년 2월 10일	58	2000
안드레 애거시	미국	1995년 4월 10일	101	2006
카를로스 모야	스페인	1999년 3월 15일	2	2010
예브게니 카펠르니코프	러시아	1999년 5월 3일	6	2010
패트릭 랫퍼	호주	1999년 7월 26일	1	2002
구스타보 쿠에르텐	브라질	2000년 12월 4일	43	2008
레이트 휴이트	호주	2001년 11월 19일	80	2016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	스페인	2003년 9월 8일	8	2012
앤디 로딕	미국	2003년 11월 3일	13	2012

# MELBOURNE



지난 호주오픈에서 정현의 온코트 인터뷰를 맡은 쿠리에(오른쪽)

##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

보리는 은퇴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선보였다. 현재 이 브랜드는 남녀 테니스 의류, 속옷, 스포츠 웨어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스웨덴 내에서 미국 브랜드 케빈 클라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브랜드로 성장했다. 무스터는 2003년 'TOMS'라는 안경 브랜드를 론칭했고 2005년 사업영역을 와인과 생수로 확장했다.



베커는 2009년 5월 자신의 이름을 딴 온라인 미디어 'Boris Becker TV' 설립하며 사업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 애거시는 자선사업 외에 벤처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TOMS에서 출시한 선글라스



▲의류 브랜드 '보리'에서 론칭한 속옷

▶패션 사업가로 변신에 성공한 보리



사업가로 변신한 무스터



선수명	국가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비외른 보리	스웨덴	1977년 8월 23일	109	1983
토마스 무스터	오스트리아	1996년 2월 12일	6	1999



신문을 보고 있는 '정치인' 사핀

### '라켓 놓고 금배지' 정계진출

ATP 컴퓨터 랭킹 최초 1위 나스타세는 1996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쓴 잔을 마셨다. 이후 계속 정치판에 기웃거리던 그는 드디어 2012년 부쿠레슈티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7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하지만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스타세는 "정치인들은 오직 개인과 당의 이익만 챙기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신만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는데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정치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에 발을 내디딘 사핀은 2011년 러시아 연합당을 대표하여 하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테니스를 하면서 다져진 강한 정신력이 정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페더러와 나달이 계속 우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나스타세(왼쪽)

선수명	국가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일리에 나스타세	루마니아	1973년 8월 23일	40	1985
마라트 사핀	러시아	2000년 11월 20일	9	2009



샘프라스(가운데)가 아들 라이과 함께 정현과 페더러의 BNP파리바오프 8강을 관람하고 있다

### 주도 새도 없이 사라진 은둔형

샘프라스와 리오스는 은퇴 후 눈에 띄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리오스는 2008년 결혼 소식 외에 언론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다.

샘프라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퇴 선수들을 위한 'ATP 챔피언스 투어'에 가끔 출전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3월 정현(한국 체대)과 페더러의 BNP파리바오프 8강을 아들과 함께 관중석에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샘프라스는 페더러와 나달의 2014년 호주오픈 4강도 관람하는 등 페더러 경기의 관중석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선수명	국가	최초 세계 1위 등극일	통산 1위 기간(주)	은퇴 연도
피트 샘프라스	미국	1993년 4월 12일	286	2003
마르셀로 리오스	칠레	1998년 3월 30일	6	2004